

파란통신

거리에서 쓰는
라이브 마케팅 보고서
2002 vol.03

“우리시대의 루키, 루키즘”

Lookism

2002년 공주들의 아름다운 이데올로기



LOOKISM

왜?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선호하는가? 또 회사들은 취업조건에 미모를 포함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걸까? 예쁜 여자는 그렇지 못한 여자보다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예쁜 여자는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여자보다 훨씬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가? 그렇다면 여자에게 있어서 외모는 늘 능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인가? 남자는 예외인가? 당신은 어떤가? 시대가 바뀌고 소비가 활성화 되고 루키즘 현상의 발원이 된 외국 보다 오히려 더 뜨겁게 우리사회를 달구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뷰티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새로운 마케팅과 시장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루키즘은 과연 무엇인가? 루키즘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루키즘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루키즘의 이모저모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았다.

루키즘 Lookism, 현대인의 뷰티 이데올로기

뷰티: 라틴어 bellus + bonus(good)의 합성어

예쁜 꽃, 예쁜 동물, 예쁜 집, 예쁜 옷, 먹음직스런 음식, 예쁜 집시, 예쁜 컵.... 사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 즉 미의식은 사람을 동물과 구분되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또 실제로 의식주 전반에 걸쳐 디자인이란 활동으로 승화되어 인간생활과 사람들의 정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유불급! 지나치면 화가된다. 루키즘은 지나치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노력이 도를 넘어 예쁜 여자 그렇지 못한 여자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다른 선민의식을 양산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가 인간과 인간을 차별하는 요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Lookism: Look + ism의 신조어.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은 뉴욕 타임지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가 처음 사용하면서 일 반화 되었다. 그도 이러한 현상을 씩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은 듯 루키즘이 인종, 성, 종교, 이념에 이은 또 하나의 차별적 기제로 지목, 외모가 개인 간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차별을 전제로 하는 루키즘은 사회주의가 가고 자본주의도 가 버린 이데올로기의 공백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이른바 "외모지상주의"로 날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1. 루키즘-이른바 외모지상주의

"처음엔 주변의 소개를 받았어요! 하지만 번번이 맘만 상했어요. 사실 아는 사람들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어요. 하지만 그 곳에서도 좀 난처해 하는 거 같아요. 사귀게 되면 누구보다 잘해줄 자신이 있는데 다들 외모부터 먼저 따지니.....솔직히 외모얘기만 나오면 있던 의욕도 자신도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화장품, 바디 케어 제품, 기능성 비누, 바디 슬리밍 제품 까지... 외모에 신경 쓰는 친구들 보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따라 쓰기 시작 했는데 이것저것 외모를 위한 제품들이 장난 아니게 많아진 거 있죠! 이제 쌍꺼풀 수술정도도 그냥 애교에 속해요!"

루키즘은 한 마디로 외모지상주의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논하기 이전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선하는 까닭일까? 실제로 외국에서 경험적으로 조사된 결과 아름다운 사람이 법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적고 배심원들도 피해자가 아름다울 경우 더 동정을 가진다고 한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하거나 겪는 일이기도 하다. 외모관리에 들이는 돈과 시간과 노력은 이제 젊은 여자들만의 일은 아니다. 예뻐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세대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 외모에 대한 집착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있다. 화장에 관한 한 변방의 부족으로 분류되던 남성들도 화장은 물론 피부미용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사회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루키즘에서 성별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 해지고 있었다.

연예인 L모양은 억울하다! 연예인 H모양(?)은 흐뭇하다?

남 모르는 수고와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한의 눈물을 뿌려야만 했던 연예인 L모양은 이러한 외모지상주의의 억울한 희생자다. 과감한 결단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감행, 커밍아웃으로 화제가 됐던 H모(?)은 톡톡히 외모지상주의의 은택을 입은 수혜자다. 이 두 사례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사회의 외모에 집착하는 정도는 기존 상식 그리고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훨씬 뛰어 넘고 있다.

2. 진짜를 홀대하는 사회, 가짜를 우대하는 사람들

최근 1천 264명의 취업예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 성형외과와 인터넷 리크루트 회사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98%가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을 뽑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584명 중 94%가 채용시 "외모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굳이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다"거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말 따위는 이제 시대에 덜떨어진 사람의 고리타분한 설교로 치부된다.

가짜 시계, 가짜 그림, 가짜 과일, 가짜 모델... 그리고 보니 사람들은 굳이 진짜를 찾지 않는다. 소위 '짜퉁'이라 불리는 뒷골목 시장의 명품 이미테이션에서 당당히 CF를 통해 진짜를 대신하는 이미테이션 모델의 범람까지, 진짜를 대신한 가짜를 진짜와 대등하게 우대하고 있다. 외모가 선택기준의 '0순위'에 오르면서 이처럼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진짜를 홀대하고 가짜를 우대하는 이른바 '외모지상주의' 사회를 살고 있었다. 그 어느 때 보다 외모에 열광하며 진짜와 가짜의 정체성마저 모호하게 하는 우리시대의 '외모지상주의' - 당신은 루키즘에서 자유로운가?



"어느새 인생관이 되어 버린 '아름다움'이라는 철학"

Q : 용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작용한다

A : Yes! 68%

특히 대학생과 직장인의 경우는 80%에 육박하는 수치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름다운 외모가 보다 중요한 연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인생에도 '외모'라는 부분은 성공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 때의 외모는 <회일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개인적인 매력의 개발>이라고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사 결과는 사회생활을 대비하거나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층에서 느끼는 체감지수가 더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Q : 피부 및 몸매를 보면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짐작된다

A : Yes! 70%

'풍성한 사람은 못사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속설이 수치로 입증되는 부분이다.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따른 몸매와 좋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적어도 '잘 사는 사람' 내지는 '자기 관리할 여력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모로 인한 차별화'가 일반화되고 있음이 짐작되는 부분이다. 이 항목은 특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표가 나는 30~40대 층에서 80%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Q : 외모를 가꾸는 것은 멋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A : Yes! 78%

과거에는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에겐 은근한 압력이 가해졌다. 예컨대 "아무개 딸 말이야.. 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무슨 멋을 그렇게 부려? 저러다 대학이나 제대로 가겠어?" "아이구 세상에..아무개 와이프~ 주부가 그렇게 꾸며서 뭐 하겠다는 거야?" "아무개 씨는 회사에 일하러 오는거야? 멋내러 오는 거야?" 등...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무신경한 사람에게 압력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아무개 딸은 너무 똥똥해. 젊은 애가 저렇게 미련(?)해 가지고 공부나 제대로 하겠어?" 또는 "아무개 와이프는 너무 둔한 거 아니야? 세상에 무슨 여자가 저렇게 센스가 없을까? 살림하는 것도 보나마나일거야?"라는 말 등이 보편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

Q :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출하면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대한다

A : Yes! 69%

버스를 탈 때 외모에 신경 좀 쓰고 외출한 날은 버스가 바로 내 앞에 선다. 대중대중 하고 나간 날은 이상하게도 버스가 내 앞을 지나쳐 한참을 지나서 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기 위해 없어 보임을 무릅쓰고 낱다 쫓는다. 그럴때면 기분은 참 비참해 진다. 타게 되면 다행, 못 타면 더 황당. 외모가 괜찮은 날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세워 달라고 할 때도 기사가 잘 세워 주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니냐고? 조심! 그런 경험도, 그런 생각도 없다면 자칫 이상한 사람으로 분류 될지도 모른다.

Q : 아무렇게나 하고 나간 날은 일도 잘 안 된다

A : Yes! 32%

누구 아는 사람이나 만나면 어찌지? 저 사람은 또 왜 자꾸 내 얼굴을 쳐다 보는 거야? 화장으로 가린 잡티가 드러난 걸까? "나름대로 스포티하다고 걸친 티가 오늘따라 왜이리 후줄근한 거야? 혹시 없어 보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신경 쓸 바에야 아침에 좀더 짬을 내서 열심히(?) 하고 나올 걸 하고 후회해도 때는 늦다. 사실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는데 괜히 혼자서 자꾸만 주눅이 든다. 몸짓 하나, 악세사리 하나하나가 자꾸만 신경 쓰인다. 마음에 병어들었나? 유행에 뒤떨어진 건 아니겠지? 사람들은 자꾸만 헛갈려 한다.

Q : 또래 여자를 만나면 어느 새 외모부터 비교하게 된다

A : Yes! 56%

오호! 제법인데! 얼굴 그런대로 가름하고 오탁한 곳날이 남자들이 좋아 하겠어! 흠... 짜~악! 몸매도 받쳐 주고. 거리에서 슈퍼에서 동네에서 멋진 여잘 보면 모두들 자기도 모르게 자신과 비교를 한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만나는 멋진 여자는 모두 공공의 적! 여자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었다. 옛말에 여자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공부를 잘했는지 아들이 있는지 알게 뭐람. 지금은 일단 외모에서 밀리면 다 밀려 버리고 마는걸...



Q : 외모 관리는 일반 취미생활 보다 중요하다!

A : Yes! 48%

당신의 취미는? 음악감상, 독서, 영화감상, 스포츠 활동...그것 뿐인가? 외모관리는? 이상한 질문인가? 생각해보면 외모 관리의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는 일, 그것도 정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치르는 의식이고 보면 가히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으랴. 여자에게 있어 외모관리는 하나의 '취미생활'을 넘어 특기가 되어 가는 건 아닌지...특히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여대생과 직장인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다. 남은 시간만큼 외모에 비례하는 건가? 어쩌면 당연한 결과...

Q : 친구와의 대화 중 외모에 대한 비중은?

A : Yes! 39%

어쩔, 예뻐졌다 ~어! 와~얼굴 좋아졌는 걸?, 우와~ 살이 쏙 빠졌네...., 어쩔 너 정말 용됐다 등등... 보통의 경우 친구들과 만나서 처음 얘기의 물꼬를 트는 말은 대개가 외모에 관한 말, 그리고 보니 여자들 모든 얘기의 시작과 끝은 외모와 관련된 대화로 시작해 외모 이야기로 끝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보통사람의 경우 피부, 몸매, 옷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의 비중은 대화의 1/3 이상! 인생의 1/3을 외모에 대한 말로 채우고 있다는 얘기? 특히, 중고생의 경우에는 50% 즉 대화의 절반 이상을 외모 관련 대화로 구성된다고 하니,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며 고민하던 그 옛날 세대들은 정말 격세지감을 아니 느낄 수 없다.

"외모 관리는 이제 취미생활의 하나 일뿐!"

Q : 외모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은?

A : 하루 평균 53분

우리의 중고딩들! 공부하느라 무지 바빠 걸 눈질은 엄두도 못낸다? "천만에 말씀 만만하의 공뽀"이다. 이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기대치 이상! 평균적으로 하루 24시간 중 최소한 57분을 외모관리에 투자한다고 한다. 대학생은 조금 더 늘어 정확히 러닝 타임 60분. 알고 계시라. 당신의 아들 딸, 이 나라의 청소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한 시간 이상은 외모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사실.

Q : 하루에 거울은 몇 번이나 보나?

A : 평균 8.3회

보고 또 보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항상 확인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특히 중고딩은 일 평균 9.3회를 기록, 가장 확실한 '거울 공주'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거울 공주가 되어 주문을 외고 또 외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내..가 제일 예쁘지~이?그치~이?"

Q : 쇼윈도 옆을 지나다가 자기 몸을 비춰 보는 비율?

A : Yes! 49%

거리를 걷는데 내 몸이 쇼윈도에 비춰진다. 무의식 중에 돌아보게 되는 비율이 절반은 된다는 것인데...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느라고 힐끔힐끔, 여자들은 자기를 보느라고 힐끔힐끔, 굳이 신경 써서 몸 단장 하고 나오지 않더라도 흐트러진 자기 모습이 보일까 불안한 걸까? 이래저래 길 갈 때는 조심조심 걸어야겠다. 그런데, 거울은 나이가 어릴 수록 자주 보고, 연세가 있을 수록 거울보다 쇼윈도에 전체적으로 비춰보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젊은 아이들은 국소적인 <얼굴>을 중시하고 나이 살이 나 먹은 어른들은 <전체적 스타일>을 중시한다.

"어라랏~ 몸매가 외모를 누르네!"

Q : 얼굴 예쁜 여자보다 몸매 좋은 여자가 더 부럽다

A : Yes! 72%

20대 후반 이후에는 80% 가량의 여성들이 몸매를 더 중시한다고 한다. 얼굴은 화장이나 간단한(?) 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몸매는 전체 스타일을 결정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간단한 화장이나 도구로 가릴 수도 없거니와 해결하기엔 보다 큰 고통과 처절한 노력을 요구하기에 나이가 들어 갈 수록 망가지는 몸매는 얼굴보다 더 큰 스트레스...흔들어도 흔들어도 빠지지 않는 살들의 반란에 대한 대책마련에 여자들은 지금 고민고민 고민 중!

Q : 나는 평균보다 뚱뚱한 편이다

A : Yes! 73%

대상자의 4명 중 3명이 자기가 평균보다 뚱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뚱뚱해도, 말랐어도 남 보기에 그저그런 듯 보여도 여자들은 언제나 스스로 자기는 살이 찼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산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날씬하고, 더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중에 시달리고 있는 탓은 아닐까? 아무 잘못도 없이 죄책감을 조장하는 언론에 밀려 스스로를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만큼 많아 보인다. 약한 자들, 그대 이름은 여자?

Q : 나는 평균보다 머리가 큰 편이다

A : Yes! 65%

'대頭 콤플렉스', '얼큰이 콤플렉스'란 말을 들어 보았는가?. 외모에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 작은 머리, 작은 얼굴에 대한 소망은 점점 커지는 듯하다. 예쁘지 않은 얼굴은 고칠 수 있다지만, 머리, 얼굴 크기 자체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부분 수정만 가능 할 뿐. 근본은 어쩔 수 없다. 때문에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운명적 형상>에 절망하며 평생 불치병 아닌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늘어 가고 있다. 이 병의 특징은 심플하고 전염성이 강하다. 짐 착상 또한 만만치 않다. 한 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이 병에 감염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절대 자기 머리와 얼굴을 미인과 비교하지 말 것!>

Q : 정기적 운동 혹은 몸매 관리를 한다

A : Yes! 46%

대단한 한국인의 의지! 미처 몰랐다 그녀들의 독종청신! 10대부터 40대까지 여성의 반 수 정도가 평소에도 쉬지않고 꾸준히 자기 몸매를 관리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신은? 나머지 반도 시간이나 여건이 안 따라 줘서 못하고 있을 뿐 끊임없이 신경은 쓰고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대부분은 누구나 머리 속에 <몸매 정보 장치>가 가동 중인 셈...

Q : 3kg정도의 다이어트는 기본이다

A : Yes! 58%

이 정도면 대한민국 여성의 만성적 다이어트 증후군이라 부를 만하다. 특히 몸매에 군살이 붙기 시작하는 20대 후반 이후 층에서는 70% 정도의 여성이 모질게 3Kg 정도의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여자들의 세상에서 다이어트는 이제 한 시도 거를 수 없는 일상이다. 여자들의 세상은 오히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르고 유행에 뒤떨어진 이상한 세상이다.



"아홍~~나 멋있어요?"

Who?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운 뷰티 퍼피들, 고3 희선이와 헤림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둔 수험생임에도 표정이 밝아 보인다. 165cm의 늘씬한 키에 몸무게 44kg의 헤림이는 무용학도! 한눈에 그 분위기를 풍기는 빼어난 몸매와 긴 생머리가 웬만한 미모랑 어깨를 견줄만 하다. 어느 연예인과 눈이 꼭 닮은 희선이는 헤림이를 능가하는 174cm의 장신에도 불구하고 49kg의 라이트한 체중을 유지한다고 했다. 입고 온 교복만 아니었다면 모델로 오인할 만큼 성숙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났다. 아직은 있는 그대로의 미모가 아름다운 뷰티퍼피들. 첫 만남에 나온 그녀들의 질문 "홍홍홍~~저 이뻐요?"

What & How? 1318 여우들의 필수품- 파우더와 나이키와 키플링 & 바르고, 신고, 매고

"항상 화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파우더 안가지고 다니는 애는 없어요!"
"몰래 발라놓고 원래 하얗고 뽀얀 것처럼 내숭 떠는데 진짜 알미워요"
"사진을 찍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립 글로스나 마스크라도 해요"

집착했던 대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콤팩트 파우더 이야기였다. 요즘 여고생들의 필수품이 <콤팩트 파우더>와 <립 글로스>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여드름을 살짝 감추고 피부색을 뽀얗게 보이게 하는 파우더 외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건 가방과 신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신발 브랜드는 <나이키><아디다스>... 여름에는 <비르켄스톡 샌달>도 인기다. 나이키는 특이한 디자인을 찾아 서너 켤레 씩 모으기도 하고, 싫증이 나면 되팔기도 한다. 가방은 <키플링>이 인기 절정,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등교하면 새로 <키플링>을 산 애들이 10명은 된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거나 심지어 학원비를 전용해 진짜 프라다 가방을 사는 애들도 있고, 짝퉁을 구입하는 애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 짝퉁도 굵이 있다는 것 쯤은 고등학생인 이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멋있잖아요!" "다 하는데 안 하면 왕따 당해요!" 아이들은 이미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인기 품목을 리스트 업 해 두고 그 제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통해 동질감을 느끼고 '따라 하기'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른들은 지금이 딱 보기 좋다고 하시지만 전 마른 게 좋아요"
"같은 반 남자애들이 다리가 두껍다고 놀려대요."
그럴 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예요"

얼른 보기에 지금도 충분히 날씬한 두 여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만 아니라면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했다. 무용을 하는 헤림이야 그렇다 치고, 희선이는 어른들은 지금이 딱 좋다고 얘기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모델처럼 마른 게 예뻐 보이는 거라고 애뎀 미인관에 당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남녀 공학을 다녀서? 유난히 몸매 관리에 신경을 써서? 물어보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 튀어나온 배를 찌르거나 외모를 빗대어 놀리면 특히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장 다이어트를 할 여건이 되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속앓이를 하며 다짐에 다짐만을 더 할뿐 '수능만 끝나 봐라~이 놈의 수능만..' 그들의 외모 개선에 대한 의지는 비장하기까지 했다.

"성형수술요? 울 또래 애들도 정말 많이 해요"
"남녀공학이 아닌 여고 애들은 학기 중에도 쌍꺼풀 수술도하고 코도 높인대요."
"저도 수능 끝나면 피부 박피부터 할 거예요"

무용하느라 땀은 많이 흘리는데 공부하느라 씻지 못하는 헤림이의 고민은 여드름이다. 아빠는 수능이 끝나면 박피를 해주기로 헤림이와 약속을 했다. 남녀공학을 다니는 헤림이와 희선이는 성형수술을 하고 예쁜 친구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수술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를 물으니 남학생을 비롯한 주변의 친구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상대적으로 남학생과 접할 일이 적은 여고생들은 학기 중에도 과감하게 쌍꺼풀 수술이나 코수술을 한다고 했다.

- 개 념/ 뷰티 퍼피
- 키워드/ "우리끼리 찌리릿"
- 내 용/ 따라하기와 대리만족, 나 보다 중요한 이상



세대





Why? Attention please!
끼로 튀고, 멋으로 튀고, 아름다운 공주되기

"있어 보이는게 중요해요, 잘 사는 집 애처럼 보이고 싶어요"
"누군가가 특이한 나이키 운동화를 일본에서 구했다거나,
최신 프라다 가방을 새로 샀다고 하면 그 날로 완전 떠오"

안 해도 풋풋한 그 나이에 왜 파우더를 바를까? 왜 몇 달 씩 힘들게 아르바이트까지 해 가며 <나이키>를 <프라다>를 사는 걸까? 똑같은 교복을 입어야 하고, 엇비슷한 헤어 스타일을 한 채 하루에 최소 8시간은 한 공간에서 보내는 그들에게 '예쁘다'는 것은 '눈에 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입에 오르내리고 싶고", " 주목받고 싶은" 이들은 옷과 머리가 비슷할 수 밖에 없다는 제약 때문인지 '하얗고 뽀얀 피부'를 만들고 눈에 띄는 신발과 가방으로 시선을 끌고 싶어 한다. 공부와 건전한 놀이로 내면 채우기에 힘 쏟는 모습이 어울릴 것 같은 나이. 하지만 이들 역시 루키즘 트렌드를 외면하지 못해 또래들에게 나름대로 보여지는 외모 가꾸기에 열광하고 있었다.



1318의 루키즘
예뻐지기 = 눈에 띄기 = 친구들의 관심끌기

My Dream My Darling 수퍼모델, 탤런트, CF모델-
우리들의 이상형!

구체적으로 뭐가 예쁜 거냐고 캐물으면 단박에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다. 대학로 같은 곳을 가면 예쁜 대학생 언니들에게 관심이 많고. 김민희, 공효진 같은 모델들을 예뻐한다. 탤런트 S양처럼 볼 살 두둑하니 예쁘지도 않으면서 귀여운 척, 이쁜 척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성은 물론이고 동성들끼리도 예쁘면 인정해 준다. 요즘은 공부만 잘 해서는 인기있는 학생이 될 수 없고, 인기가 없으면 학교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론! 한 반에서 오로지 공부만이 관심사인 학생은 불과 10% 미만, 그들도 드러나지 않는 일련의 내숭일 뿐 최소한 가방과 신발에 관해서는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꼭 자신이 아니어도 나름대로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어린 공주들의 루키즘은 아직은 소박하다. <예뻐지기>그래서 <눈에 띄기> 그래서 맘 잘 통하고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을 많이 많이 사귀는 것.

" 모델들이 좋아요,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김민희나 공효진"
"와 저 여자 멋지다" 하는~~~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1318 깜찍한 뷰티 퍼피들. 그들은 대화 내내 추상적 의미의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선호한다. 아무리 형이상학적 단어를 유도해도 대답은 자동으로 시각화 되어 쏟아진다. 소위 디지털 세대, 비디오 세대라서 일까?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기엔 내적인 소양이나 성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떻게 살고 싶나?"는 물음에 주관이나 신념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광고의 한 장면을 떠올리듯 자신의 미래와 이상형을 가시화하는데 익숙한 이들은 보여주는 데로의 인생, 광고 속 모델처럼 화려하게 주목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관심있는 신제품: 워 워 피부의 예쁜 얼굴, 교복 치마 밑으로 잘 뻗은 종아리, 험령하게 입어도 옷 발 사는 슬림한 체형
관심있는 미용 제품: 파우더, 립글로스
좋아하는 옷 스타일: 일명 풀로 스타일 '프레피 룩'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Preparatory School) 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이른 바 커튼 머리
관심 상품: 가방, 운동화
이상적인 스타일: 공효진, 김민희

- 개념/ 레디 걸
- 키워드/ 내일을 탐색하는
여자들
- 내용/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 예비
외모지상주의자들

1924세대



"괜찮아요?
인터뷰 한다고 신경 좀 썼는데.... ㅎㅎㅎ"

Who? 내일을 준비하는 레디 걸들 영문학도 도 도희, 경영학도 나 윤정

여대생! 인상 하나하나가 아무저 보이는 경영학도 윤정이. 선이 고운 이목구비를 가진 영문학도 도희. 역시 1924답게 1318희선사와 헤림이 보다는 한 수 위! 윤정은 어느 여대생처럼 하얀 먼 티셔츠에 청치마와 캔버스화가 잘 어울려 보였다. 작고 귀여운 얼굴과 동그란 뒤통수에서 어딘가 모르게 전지현을 연상케하는 발달함이 배어 나오는 분위기...반면 도희는 블랙의 압전한 정장 원피스에 티파니 스타일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세트로 매치한 성숙한 분위기다. 오늘의 인터뷰를 공적인 자리로 인식하고 그에 맞춰 세련된 분위기 연출을 시도한 듯. 같은 여자, 같은 나이면서도 둘은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무심한 듯 하면서 세심하기도 한 그녀들이 입을 열었다.

What & How? 1924 레디 걸들의 필수품 - 다다익선, 화장품, 옷, 액세서리& 각각각색 다양하게

"색조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써요"
"친구들이 사면 따라서 많이 사는 편이에요"
"과 애 중 한 명이 예쁜 색을 바르고 들어오면 눈여겨 봐요"

일찍 일어나느냐 늦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메이크업의 정도가 달라진다. 귀찮으면 립스틱만 바른 채 티셔츠 만 달랑 걸치기도 한다. 가끔은 맨 얼굴에 추리닝으로 돌아다니기도 한다. 화장품? 필요해서 사놓고 까먹고 안 쓴다. 잃어버리기도 잘 한다. 기초는 클리닉을 가장 많이 쓴다. 품질이나 가격이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딱이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이크림이나 영양크림 등의 기능성 화장품은 이제 막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단계다. 피부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바꾼다. 이자누스, 에스티로더, 브랜드도 지가지. 아베다는 비싸서 언니나 엄마가 사면 같이 쓰고, 바디 용품도 들어온 선물이면 나누어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주로 쓰는 브랜드가 없다. 레브론, 바비브라운, 랑콤, 브랜드는 가리지 않고 쓰되, 과 친구가 새로운 색깔을 바르고 왔는데 예쁘다 싶으면 눈여겨 보고 시도해보는 걸 잊지 않는다. 좀 친한 친구라면 브랜드와 색깔도 자세히 물어 본다.

"고등학교때 부터 안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제 남자 친구는요,
똥똥한 사람은 게으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나 윤정양,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귀찮아서 다이어트에 소홀해졌지만(그래도 166 cm 50kg) 고등학교 때는 방학 때 마다 헬스며 원푸드 다이어트며 안해 본 게 없다. 달콤한 브라우니도 한 두 입 먹고 나면 싫증내는 입이 짧은 도희가 정말 부럽단다. 워낙 말라서 다이어트를 특별히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도희양. 새 학기가 되어 기분 전환 삼아 헬스를 다닌 적은 있으나 곧 그만 뒀다. 언젠가 남자친구가 남자를 불문하고 똥똥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했던 게 기억 난다고 한다.

"지오다노 광고를 보고
전지현이 입은 청바지를 사 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머릴 새로 했는데 예쁘다 싶으면
그 미용실에 가 봐야지 하고 생각하죠"

대체로 그녀들은 아작은 긴 생머리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자연스럽고 청순한 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굳이 입는 옷의 용도를 나누자면 통학시 편하게 입는 옷과 이벤트성 모임(생일파티나 나이트 클럽 갈때)을 위한 정장 정도? 남녀공학을 다니는 여학생은 캐주얼을 자주 입고, 여대에 다니는 여학생은 정장을 자주 입는 것 같다. 특별히 옷 사는 데 기준은 없다. 딱히 좋아하는 브랜드도 없다. 친구가 입고 온 옷이 맘에 들면 생각해 두었다가 우연히 쇼핑할 때 발견하면 지나다가 산다. 액세서리?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기회가 닿는대로 산다. 비싼 건 당연히 카드로 산다. 요즘엔 대학생들도 다 카드가 있다.



"꾸리하게 하고서 도서관에 가면
남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아져 공부도 오히려 안돼요"
"같이 다니는 친구들 끼리는 외모가 비슷비슷해요."

Why? Ready for tomorrow!
찾아 보고, 느끼고, 준비하고 우리는 아직 주변인

2534보다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1318보다는 풍부한 비용충당의 기회를 가진 그녀들, 시간과 돈은 외모를 가꾸고 다듬는데 투입되기 시작하는데 뭐든지 지속적이고 꾸준한 건 없다. 머리 속에 항상 외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귀찮아서 꾸준한 실천은 절대 안한다. 피부관리도 아직은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없고, 네일케어도 한 두번 재미로 받아 보는 정도. 과의 누구 한 명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오면, 따라 해 본다. 누가 예쁜 립스틱을 바르고 오면 따라서 산다. 같은 대학을 다닌다는 건,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일단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끼리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되기 쉽다. 여기서 외모는 나와 열자리의 그녀를 구별지어주는 유일한 식별 부호인 동시에 서로의 취향을 감지해 내는 인식부호인 것이다. 털 예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부류가 있고, 나와 다른 분위기를 가진 부류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1924의 루키즘
탐색하기 = 체험하기 = 정체성 찾기

My Dream My Darling **당당한 커리어 우먼, 사랑받는 현모양처 - 우리들의 이상형!**

이상형? 아직은 없다. 구체적인 꿈을 만들기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 하지만 관심은 많다. 무관심한 건 결코 아니다. 다만 끊임없이 탐색하고 체험하고 즐길 뿐, 5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라고 했다. 둘의 공통점! "바쁘게 살고 싶어요"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바쁨이 아니라 항상 긴장을 잃지 않는 삶. 매일매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 받는 삶을 원한다고 했다.

"내 나이 스물 아직은 대학생, 천천히 생각할래요!"

1924 우리들의 현실적인 레디 걸들. 일에 가치를 둘까? 가정생활에 좀 더 비중을 둘까?의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은 어느 한쪽의 삶을 소중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입시 지옥에서 갓 해방된 그녀들. 치열한 평가와 경쟁에서 잠시나마 자유로와 진 탓일까? 이들은 대학생이라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적당히 체험하고 적당히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지금의 자유가 나태로 이어지고 그것이 도태로 귀결되는 삶은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관심있는 신체부위: 작고 예쁜 두상과 늘씬한 팔다리의 서구 미인형
관심있는 미용 제품: 색조 제품들, 아이크림 등의 기능성 화장품
좋아하는 옷 스타일: 커리어우먼처럼 보이게 해주는 마인, 미사 등 정장 스타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무조건 긴 생머리(유행에 상관치 않음)
관심 소품: 선글라스, 악세서리, 머리핀
이상적인 스타일: 진지현



- 개념/ 프리티 우먼
- 키워드/ 미모로 새 인생을 만든다
- 내용/ 운명을 개척하는 커리어 우먼 군단

프리티 우먼

세대

Who? 외모를 외면할 수 없는 커리어 우먼, 패션 디자이너 이 현주c와 회계사 조 수진c

이 현주, 국내 여성복 브랜드에서 디자이너, 4년간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 한눈에 보기에 보통사람들이라면 소화하기 힘들만큼 과감하고 파격적인 의상으로 기선을 제압한다. 조 수진, AICPA자격증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의 회계사. 직업에서 느껴지는 만큼이나 반듯하고 커리어 우먼 다운 세련된 모습이 한 눈에 전문성을 느끼게 한다. 전문성이 배어나는 화려함과 깔끔함이라고 할까... 두 사람은 당당한 커리어 우먼답게 외모에서부터 남과 다른 자신만의 이미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What & How? 2534 프리티 우먼의 필수품 - 피부관리실, 헬스 회원권... & 끊임없이 가꾸고 뛰고, 다듬고

"이제 경제적 여유가 되니까 외모 관리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엄마가 사 주시면 모를까 내 맘대로 원하는 걸 사지는 못했죠"

고정수입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정말 크다. 수입이 생기면서 학생 때와 다른 점은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값 나가는 명품 구입도 가능하고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피부관리도, 헬스클럽 등록도 가능한 것이다. 이들에게 카드값의 대부분은 슬값이 아니다. 무엇보다 외모관리에 투자하는 비용이 우선된다.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면 바로 피부과를 가요"
"스케일링도 하고 약도 정기적으로 먹어요"
"요즘은 바다나 풋케어 그리고 왁싱이나 네일에도 관심이 가요"

짙은 야근과 수면 부족으로 피부노화를 실감하게 되는 연령, 이들은 피부에 특히 관심이 많다. 여드름이나 잡티 등 피부가 나빠지게 되면 고민하지 않고 지체없이 피부과를 찾는다. 스케일링이나 약물요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부상태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보인다. 좋다고 입소문이 난 제품이나 브랜드에 관심은 가지지만, 화장품이 피부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본인 취향에 맞는 브랜드를 적당히 골라서 쓴다. 이들에게 화장품은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는 영역인 반면, 바다 케어, 왁싱이나 네일은 새로 탐구하고 싶은 영역인 모양이다. 네일이나 왁싱, 예전에는 그냥 아마추어적인 민간 요법(?)으로 해결했던 것을 전문샵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호기심을 갖는다.

"지금보다 3kg정도 더 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하는 숙제와 같은 거예요"

이 현주씨는 166cm에 52kg, 패션 디자이너이다 보니 여러 가지 옷을 소화해 내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보다 3kg정도 빼고 싶은 소망이 있다. 조 수진씨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지만 칼로리가 높은 간식류나 야식은 조심한다. 인터뷰 도중 시킨 저녁 메뉴를 살펴 보았다. 이 현주씨가 주문한 것은 야채 샐러드, 조 수진씨는 저녁을 먹고 왔다는 이유로 음료 주문 마저도 생략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니까 배도 나오고 군살도 붙은 것 같고..."
"적어도 주 1,2회! 내 건강을 위해서 꼭 운동을 해요"
"헬스클럽 같은데 뛰면 사회적 지위를 느끼곤 해요"

헬스와 몸 만들기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화두, 이 현주씨, 조 수진 씨 둘 다 헬스 클럽에 다닌다. 바쁜 업무로 인해 일주일에 1-2회도 간신히 가는 수준이지만, 같이 등록된 친구, 여동생과 함께 열심히 하자고 서로를 독려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단지 살을 빼고 몸매를 가꾸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직장 연차가 쌓일 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때문이다. 많이 걷고 돌아 다니던 학생 때와는 달리 종일 앉아서 일하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보니 체력저하를 실감하게 되고,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왜 헬스 클럽일까? 이 현주씨는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은 물론이고 음향과 조명시설이 훌륭한 곳에서 운동을 하면 그야말로 +α, 확실한 리프레쉬가 된다고 말한다. 소득이



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을 뛰고 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욕구수준도 상향조정되었다, 삶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느낀다.

"내 체형과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가 있어요"
 "직장인이니까 아무래도 바지 수트를 잘 입게 되고,
 전반적으로 클래식하게 입지요. "유행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개성있고 튀게 입으면..."



이것저것 시도해 볼 나이는 지났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과 브랜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있다. 무조건적인 유행의 추종은 싫다. 요즘 여성분들은 브랜드만 다를 뿐, 디자인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거리의 여성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헤어스타일, 비슷한 구두와 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못마땅하다. 그렇지만 유행을 아주 무시하기도 힘든 일. 조수진씨는 말한다 "뉴욕에서 광고 디자이너로 일하는 언니가 옷 입는 스타일은 보통 한국 여자들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인지 저희 엄마는 언니가 옷을 잘 못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옆 집 딸과 비슷한 색,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는다면 안심하시죠. "전 남보다 앞서갈 필요는 없어도 뒤쳐지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Why? Tomorrow is better than Today! 나만의 멋을 위해,
 주목 받는 삶을 위해...

"지금보다 예뻐다면 좀 더 살기 편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경쟁하는 거 호감가는 외모가 확실히 이득이죠"

외모는 경쟁력일까? 적어도 이들에게 그랬다. 엇비슷한 학력과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나' 라는 존재를 쉽고 빠르게 기억시키고 차별화는 강력한 무기는 출중한 외모! 기왕이면 인상도 좋고 호감을 주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외모에 신경 쓰는 데 드는 돈과 시간도 무시할 수는 없다. 납작한 뒤통수에, 여드름 난 피부에 드는 시간과 돈을 영어공부에 할애한다면?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업무능력이 출중하다고 인정받는 여자 상사들이 단순히 업무능력만으로 남자들을 압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하나같이 좋은 인상과 환한 미소, 부드러운 말씨와 세련된 매너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고 한다.

2534의 루카즘
 문제찾기=시도하기= 성취하기

My Dream My Darling 일은 내가 만드는 운명, 집은 내가 세우는 독립국 - 우리들의 이상형!

"당당하고 자신있게 그러면서도 우아하게 살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한 주체인 동시에 가족이나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사람"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더 높은 연봉, 더 명예로운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미모는 경쟁력,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도 불사 그들은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원한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기를 원하는 것이다. 몸은 아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독립한 상태인 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원한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기를 원하는 것이다. 학생 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정신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느끼지만, 언젠가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으며 온전하게 내 것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면 한다. 일단은 내가 잘 되어 남한테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관심있는 신체부위: 볼륨있으면서 탄력있는 몸매
 관심있는 미용 제품: 피부과에서 나오는 코스메디컬 화장품
 좋아하는 옷 스타일: 내 스타일과 분위기를 살려주는 Every Brand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활동적이고 지적인 이미지의 레이어드 컷
 관심 소품: 핸드백, 구두
 이상적인 스타일: 캐롤린 비셋 케네디, 빅토리아 베켄



- 개 념/ 해피키퍼
- 키워드/ 백 투더 스위트
- 내 용/ 센스와 균형으로 행복을 지키는 아름다운 여인들

35세

세대

Who? 아름다운 전업주부 이 헤리씨와 지적인 파트타임 겸업 주부 김 미연씨

전직 모델 출신, 이 헤리씨는 현재 두 아이와 사업을 하는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하는 전업주부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쭉 빠진 몸매와 수려한 용모가 얼른 보기에도 전혀 주부 같아 보이지 않는 세련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김미연씨는 직장 생활의 경험을 살려 디자인 관련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딸과 교수인 남편을 두고 있으며 웬지 시대에 뒤쳐진다는 생각에 옛감각을 다시 일깨우고 싶어서 파트타임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풍기는 이미지는 어느 전업주부의 그 이미지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What & How? 아름다운 아줌마들의 필수품 스페셜 케어 화장품, 기능성 속옷 & 찜질방, 마사지 받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화장품도 속옷도 기능성을 많이 생각해요"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친구들과 찜질방이나 사우나도 자주 가죠"
"나이들 수록 몸매가 망가질 수록 예전 잘 나갈 때를 생각하죠"

바디슬리밍 제품, 스페셜 케어 화장품, 체형 보정 속옷... 아름다운 그녀들의 필수품이다. 아무래도 세월의 흐름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생체변화에 따라 찾게 되는 제품들은 가급적 더 좋은걸 찾는다. 최고급 화장품은 기본, 출산 후에 생기는 몸매의 변화에 민감해져 바디 슬리밍 제품에 관심이 많이 간다. 찜질방 혹은 사우나에서 전신 마사지도 받고 아파트 단지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일상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다이어트와 체형 보정 속옷을 통해 라인을 마무리한다. 모두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녀들로선 남편, 자녀는 물론 자기 관리까지 무엇 하나도 소홀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소홀 할 수가 없다. 모두 시간 배분이 관건. 모처럼 쇼핑을 해도 피부 관리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마음이 불편해 진다. 이때쯤 이러한 시간의 압박에서 일탈을 시도하는 것이 찜질방. 뜨거운 바닥에 불편한 몸을 지지거나 사우나에 가서 받는 전신 마사지 정도가 가장 긴 외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남편과 자녀가 떠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몸매나 외모에 신경 쓰는 그녀들의 노력에는 처녀들의 외모를 위한 외모관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Why? I love my home, my family! 내 얼굴과 몸매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

"예뻐지고 싶은데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몸매로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데선 아무래도 몸매로 비교 되니까!"

안정된 가정에 번듯한 남편 똑똑한 아이들 모자랄 것 없는 것 처럼 보이는 그녀들에게 루키즘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걸까? 웬만큼 지난 세월에 어찌면 상관없어 할 수도 있는 외모가꾸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 답은 나의 외모는 곧 나의 인격! 그녀들에게 외모는 나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나와 내 인생에 대한 식지 않은 애정의 표현인 것이다. 남자들이 이 나이가 되면 자동차나 만년필을 통해 자신의 격을 드러낸다면, 여자들은 자신의 피부 상태 및 몸매 상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굴리는 차나 두르는 옷으로 드러낼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교될 수 밖에 없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라면? 물론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남편에 대한 배려도 당연 한몫 하겠지만....



3543의 루키즘 둘러보기 = 비교하기 = 정체성 확인하기

My Dream My Darling 오래오래 스위트홀. 서정희의 세심함과 변정수의 자신감

3543 아름다운 아줌마들은 철저히 자기 관리 및 가정을 관리하는 인물로 서정희,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일과 가정 두 가지 모두를 잘 조절해 내는 자신감 있는 변정수를 단연 가장 부러운 여자로 꼽았다. 그들은 자기를 잘 꾸미는 사람이 자기 주변도 잘 꾸린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부지런하고 감각있는 사람이 자녀 및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관심사와 외모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의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하는 걸로 알고 받아들이던 예전 아줌마들과는 확실히 달라진 점이 보였다. 인간관계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과는 소원해지고 자녀를 통해 비슷한 관심과 생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며 새로운 친분관계를 만들어 간다.

“아줌마지만 아줌마처럼 보이는게 싫어요!”
“망가진 몸매가 느껴지면 스스로 내가 누군가 묻곤 해요”

자신의 개성과 취향이라는 돌출적 요소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빼어난 외모와 늘씬한 몸매는 이들 사이에서 모든 비교대상의 우위에 선다.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 외모가 단순히 외모가 아닌 복합적인 상징으로 작용하는 이들 세대의 패션과 외모관리는 센스와 균형 잡힌 감각, 원하는 패션을 연출하되 그것을 적절히 조합해 내는 센스와 감각이 관건이었다. 돋보이고 싶어도 혼자 뛰는 리스크 감소를 위해 편을 만들어 집단으로 행동하는 2002년 오늘의 3543 아름다운 아줌마들. 그들은 주부라는 이름으로 처지고 나태해지는 삶을 거부하고 뼈뺀 시간을 쪼개어 철저히 배분하고 자기관리에도 투철한 아름다운 여성으로, 전통적인 주부의 모습과는 분명 다른 여자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다.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을 그리는 그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 그 중심엔 가정이 있었다.



〈우리가 만나 본 ‘루키공주’ 들은?〉

가장 요즘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

이제 세대별로 속마음을 들여 다본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루키공주들이 솔직하게 밝힌 속마음은 이랬다. 외모에 의해 직업적 성취가 결정된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표현 된다는 등 루키즘의 어원적 의미에 보다 충실한 층은 아무래도 직업을 갖거나 가정을 갖게 된 층에서 더 첨예하게 드러난다. 대학생 미만 층의 여성들에게는 아직 외모는 기분이거나 호기심의 대상일 뿐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기엔 다소 거리가 있고 오히려,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실은 외모가 〈자기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며 그것은 곧 〈자기 삶에 대한 충실한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남보다 바쁘고 부지런할 수록 피부나 몸매는 당연히 나아지는 것이고 센스도 업그레이드 되기 마련..아름다움에 초연할 수 있는 자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아름다움에 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 속마음을 들여다 본 우리들의 결론은 그녀는 〈가장 요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관심있는 신체부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피부, 날씬한 몸매
관심있는 미용 제품: 스페셜 케어 제품, 체형 보정 속옷
좋아하는 옷 스타일: 우아하고 고급스런 분위기의 명품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나이에 맞는 이미지의 웨이브 머리
관심 소품: 유얼리
이상적인 스타일: 서정희, 변정수



루키즘 유형 나는 어떤 루키즘?

체크해 보세요. 다음 항목 중 3개 이상 체크 된 것이 당신의 루키즘 타입

[Type A]

- 외모 가꾸기는 내게는 취미생활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내 외모가 이 정도 수준이 된 건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가꾼 덕이다
- 외모 가꾸기에 드는 돈은 그다지 아깝지 않다
- 옷을 사러 가건 머리를 하러 가건 어디서든지 VIP대우를 받고 있다

[Type B]

-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언제나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돋보인다
- 유행을 선도하며 유행을 따르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 압구정동 등의 변화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 나의 외모는 평민수준(?)에서는 A급, 어지간한 연예인과 경쟁해도 꿀릴 건 없다

[Type C]

- 남들이 잘 안 입고 좀처럼 소화할 수 없는 분위기의 옷이나 장신구를 곧잘 소화해 내는 편이다
- 외제든 국산이든, 고가든 저가든, 옷이나 장신구가 아니더라도 내 감각과 눈높이에 100% 흡족한 브랜드는 흔하지 않다
- 남과 똑같은 스타일, 유행하는 스타일로 입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 내게 안 어울리는 명품보다는 잘 어울리는 구제품에 애착이 간다
- 어린 시절부터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고들 한다

[Type D]

-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게 옷을 사 입고 머리를 해야 하는 일이 때로는 귀찮고 피곤하다
- 내 옷을 내가 직접 사러 다니는 일은 거의 없다
- 민폐 끼치지 않는 수준의 외모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
- 외모에 대한 신경 쓰는 사람은 콤플렉스가 있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Type A 미모 창조 <아마조네스 형>

난 개척자! "미모는 경쟁력! 원하는 건 고쳐서라도 쟁취한다!"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 경제력,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확실한 만큼 외모가 안된다고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어차피 나의 것, 나의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남 자들과의 경쟁? 외모는 강력한 무기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 올 수 없는 여자만의 강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나를 가꾼다.

Type B 미모 향유 <아프로디테 형>

자연주의 미인! 신으로 부터 미모를 선물 받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외모까지 받쳐 주는 타입이다. 원래 타고난 그대로가 가장 자연스러운 별. 하지만 그렇다고 외모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유행은 내게 신선한 삶의 자극, 공들일 만큼 들이고, 걸칠 만큼 걸치고, 남보다 앞서가며 남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는 타입이다.

Type C 개성추구 <아티스트 형>

난 감각파! "외모대신 감각, 깎고 고치는 건 싫어!" 외모 가꾸기에 있어서 아티스트, 자타가 공인하는 프로페셔널 기질이 다분하다. 외모보다 감각을 더 믿는다. 스스로 생각해도 매력적인 여자, 예쁘다는 것이 곧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 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세상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 내 몸에 왜 갈을 때? 난 끔찍한 변신이 아니라 언제나 기분 좋게 나타나는 변화를 추구한다.

Type D 미모 외면 <박씨부인 형>

난 능력파! "너희는 외모지상주의? 나는 능력 지상주의!" 신체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존재. 절제와 미덕을 사수하는 타입이다. 외모는 약한 여자의 전유물 일 뿐 나는 강한 여자! 남자에게 기대지 않는다. 남자들에게 기죽지도 않는다. 세상은 능력을 필요로 하고 능력이 있는 한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필요한 존재. 세상이 나를 맞출지언정 나를 세상에 맞추지 않겠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기 만족이라도 추구함이 좋을 듯.

아날로그 루키즘, 디지털 루키즘

아날로그 시대- 숨던 루키즘! 디지털 시대-나서는 루키즘

아날로그 시대에도 루키즘은 있었다. 다만 루키즘이란 이름으로 이름 지워지지 못했을 뿐 아름다움에 대한, 외모에 대한 관심표출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고 사회적 분위기와 집단주의의 문화 정서와 부딪쳐 숨죽이고 있었을 뿐... 하지만 아날로그가 지고 디지털이 출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숨죽이고 있던 개인욕구의 분출이 개성과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인정 받기 시작했고 PC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날마다 새로 쓰여지고 있다. 루키즘이 활개치기 시작한 이후 사람들의 의식도 소비도 가치도 이미 많이 달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미의식, 달라지는 가치들”

아날로그 루키즘과 디지털 루키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아날로그 시대의 용모단정한 현모양처의 여성상은 멋지고 능력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바뀌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외모는 내적 지향의 자기만족에서 외부지향의 자기과시로 바뀐 듯 하다. 얌전하고 착하고 순종적이던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의 모습이 바뀐 것이다. 달라진 여성상 만큼 소비를 주도하는 여성들의 소비행태도 크게 변했다.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맹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던 전통적 주부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소비의 목적 또한 일방적인 내 가족, 내 아이를 위한 소비에서 개인의 삶의 변화와 자기충족을 위한 소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제품의 필요성에 의한 사용가치를 중시하던 합리적

소비에서 이제는 제품이 만들어 내는 기호적인 가치 즉 사회적으로 형성, 공유되는 가치가 부여된 상징적 이미지가 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고 역시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있다. 지펠, 디오스, 트롬, 노트북 센스, 젊은 차 클러... 등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기능을 강조해 오던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컴퓨터 등의 첨단 제품들 까지 이제는 기능과 특장점을 배제한 채 사회적 지위와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는 가치를 부여하며 그 가치를 이미지로 형상화 시키고 있다. 결국 외모가 중요해진 건 이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여성상의 변화와 외모를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 소비행태와 제품의 이미지를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상들... 이처럼 우리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 사람의 외모를 지목했던 용어로 출발한 루키즘은 아예 생활 전반에 걸쳐서 뷰티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이란 이름으로, 이미지란 이름으로 시선을 끌며 다양하게 우리를 열광 시키고 있다.

구분	아날로그 루키즘	디지털 루키즘
외모	용모단정	외모우선
이상형	현모양처	커리어 우먼
소비	합리족 (사용가치추구)	명품족 (기호가치 추구)
성향	얌전, 여성적	활달, 활동적
의식	소극적	적극적
	집단중심	개인중심

(루키즘 비교표)

또 하나의 루키즘 군단!

"여자들이 열광하는 新남성상"
"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남자들"

이른바 꽃미남, 아도니스 신드롬

수백만 명의 미국남자들이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근육강화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들 까지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가져 우울증에 빠진다고 한다. 이른바 아도니스 콤플렉스, 남성외모 집착증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현상을 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신드롬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루키즘은 남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외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이 여자들 못지 않는다. 무리한 다이어트 끝에 숨지는 여자. 젊었을 때부터 얼굴에 갈을 대기 시작해 40대의 중년에 이르러 매년 성형 수술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여자, 살 빼기, 성형수술, 키 늘이기, 염색하기, 선풍 하기, 피부관리하기는 이제 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꽃미남, 남자들도 닮고 싶은 남자"
"남자들의 콤플렉스를 만드는 남자"

충중한 외모에 탁월한 능력, 꽃미남이 뜬다!

사실 우리사회는 외모에 관해 선 남자들에게 관대했다. 한동안 남자를 고르는 여자들의 경우에도 외모보단 능력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사정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외모도 멋지면서 능력도 있는 미소년 처럼 예쁘면서도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외모의 영역에서 자유로웠던 보통남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 콤플렉스 아닌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평소 무심코 보아 넘기던 주변에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사회가 여자가 남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남성상이 우대받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터프한 남자배우의 인기는 예쁜 남자배우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여성만화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들도 대부분 수려한 용모에 능력을 겸비한 꽃미남이 단연 인기다. 축구선수답지 않은 앳된 외모와 크지 않은 체구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잘생긴 축구선수가 여성들로 하여금 축구에 열광하게 한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는 꽃미남 축구선수가 수없이 오르내렸다. 스포츠 선수들도 실력 이전에 외모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주요한 요소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성역 없이 외모에 열광하는 사람들"
"내면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남과 여"

어느 날 다리가 길고 가는 한 남자기수는 7부 크롭츠 팬츠를 입고 나와 여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새로운 팬츠를 유행시킨다. 패션 뿐만 아니다. 스킨과 로손은 물론 클렌징 폼, 피지, 각질 제거 팩에 선크림, 에센스 등 이제까지 화장이라는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남성들을 위한 화장품이 붐처럼 쏟아지고 있다. 여성이상으로 스킨케어에 관심을 갖고 T존과 U존을 확실히 구분하는 화장품을 쓴다. 거친 피부를 위한 박피에 고운 손을 위한 핸드 케어를 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남자들은 분명 많아 지고 있고 아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열풍에 두려움을 느끼는 대다수는 외모보다 능력이 인정 받는 사회풍토가 시급히 조성되길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루키즘의 열풍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루키즘도 꽃미남도 보는 이에겐 모두 보기 좋은 떡.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된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낸 아이러니. 남성들이 만들어 낸 외모지상주의의 허울에 이제 여성도 남성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된 세상이다.

CHEIcommunications
APteam